

영암 대불국가산단에 콜버스 누빈다

3월5일부터 16인승 호출버스 3대 상호운 시범운영 성인 1000원·학생 100원...상반기에 전지역 무료로

‘택시처럼’ 부르면 오는 버스가 대불국가산단에 있는 영암군 상호운 일대에서 다음 달 5일부터 시범 운행한다.

영암군은 오는 3월5일부터 상호운 일대에서 ‘영암 콜버스’를 시범 운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암 콜버스 3대가 상호운을 누빈다.

이 버스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DRT) 기술을 도입했다. 영암 전역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모두 34대로, 영암군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 가운데 3대를 수요응답형 버스로 운행하기로 했다.

영암 콜버스는 16인승 3대로, 영암군은 버스 운영을 위한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한 뒤 오는 3월 중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5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일정한 노선과 운행 시간표 없이 승객의 실시간 호출 수요에 따라 노선과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다.

영암군은 혁신 대중교통수단으로 호출 버스를 도입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대불국가산단입지가 있는 영암 상호운은 노동자와 학생이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영암군에 따르면 상호운 버스 승객은 학생 40%, 대불산단 근로자가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출·퇴근 등·하교 시간에 버스 수요가 집중됐다. 영암군은 기존 버스 체계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탄력적으로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 호출 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영암 콜버스는 승객이 탑승하기 30분 전에 콜센터(1533-0777)로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앱 ‘서클’로 예약할 수 있다.

타는 곳과 내릴 곳을 정해 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오후 7시 30분 이후에는 호출할 수 없다. 하루 호출을 세 번 취소하면 당일 호출이 제한되고, 부르고도 버스를 2회 이상 타지 않아도 당일 호출을 할 수 없다.

요금은 성인 1000원, 유아·초중고 학생 100원이다. 지난 2017년부터 단일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영암군은 오는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올 상반기 안에 영암 모든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한 무료 요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영암군은 내년부터 콜버스 운영을 영암군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으로, 환승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환승을 위한 교통카드 보급률은 40%대에 불과하다. 영암군은 환승 체계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 소요보다 무료 버스 운행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암군은 시범 운행기간 승차 자료를 수집해 콜버스 운영 방안을 개선한 다음, 내년부터는 영암군 전 지역으로 콜버스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영암콜버스에 대한 안내는 영암군 교통행정팀(061-470-2367)에서 받을 수 있다.

류형철 영암군 건설교통과 주무관은 “콜버스는 지역사회와 경제 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미칠 미래 지향 지역 교통 시스템 구축의 첫걸음”이라며 “수요에 바로 대응하는 탄력 운영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



목포 삼학도에 내향 국제여객터미널 여객선 운영을 분담하기 위한 임시여객터미널이 28일 문을 연다. 삼학도 터미널 전경. <목포시 제공>

목포 삼학도 임시여객터미널 오늘 문 연다

국제터미널 확충공사 기간 이용

목포 삼학도에 28일 여객터미널이 문을 연다. 목포시는 이날 삼학도 임시여객터미널 개장을 앞두고 터미널 조성공사 마무리에 힘쓰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삼학도 임시여객터미널은 내향 국제여객터미널 확충공사 기간 대체 사용을 위해 조성되고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 달부터 국비 495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국제여객터미널 확충공사를 벌인다.

삼학도에 임시여객터미널이 열리면 국제여객터미널과 운영을 분담한다. 이날 현재 국제여객터미널에는 목포-제주 간 여객선인 퀴제누비아호-퀴메리2호 2척이 운행되고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오전 1시에는 퀴제누비아호를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이용할 수 있고, 오전 8시 45분에는 임시여객터미널에서 퀴메리2호를 대신하는 퀴제누비아2호를 이용할 수 있다.

여객터미널 운영사인 씨월드고속훼리(주)는 퀴제누비아2호의 삼학도 취항을 기념하기 위해 27일 선내에서 선박 공개 행사를 열었다.

씨월드고속훼리가 새로 사들인 퀴제누비아2호는 2만7000t급으로, 삼학도에서 처음 취항한다. 기념 행사에는 기관·관련 업체 400여 명이 참석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공사 기간 여객터미널 이원화 운영으로 이용객들의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도로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여객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 생활개선회 연시 총회...슬로시티 활동 시작

주민 눈높이 맞춘 슬로시티 교육

신안군이 신안군생활개선회 연시 총회와 슬로시티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신안군은 지난 26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박우량 신안군수, 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과 의원, 신안군생활개선회 임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시 총회 및 슬로시티 기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시 총회에서는 2024년 활동계획과 새로운 슬로시티 신안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또 주민들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슬로시티 운동을 더욱 활발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슬로시티 본부 강사를 초빙하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슬로시티 기본개념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부대행사로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는 군 분위기에 맞춰 버려지는 명절 포장 보자기를 활용한 친환경 농특산물 포장법을 전시에, 가정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안군이 지난 26일 신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신안군생활개선회 연시 총회 및 슬로시티 기본교육을 마친 후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생활개선회는 김호정 회장을 비롯해 700여 명의 회원들이 읍·면 전통문화 전수, 환경지킴이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우리 군은 2007년에 아시아

최초 국제슬로시티 회원 도시로 선정되어 오랜 시간 달려왔다”며 “생활개선회 중심으로 슬로시티 운동을 전 읍·면으로 확산시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kwangju.co.kr



완도군이 전남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에 6년 연속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모에 선정된 고금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취약계층 반찬·생필품 나눔에 나서는 모습. <완도군 제공>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공모 6년 연속 선정

고금면 ‘주민과 함께...’ 프로그램

완도군 고금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전남도 주관 ‘2024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완도군이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 선정지를 배출한 건 6년 연속이다. 고금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과 행복 나누기’ 특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성화 프로그램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밑반찬 나누기·문화 혜택 제공, 주거환경 개선 사업, 공원 환경 정비 등이 포함된다.

우리 고장 가꾸기, 전화 금융사기 예방·안전 교육,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사용·컴퓨터 활용 방법 등도 운영한다.

완도군에서는 2017년 완도읍을 시작으로 2019~2020년 고금면, 2021년 보길면, 2022년 신지면, 2023년 고금면 주민자치센터가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지난해 8월에는 ‘완도군 주민자치협의회’를 출범시켜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을 세웠다. 이 협의회는 주민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무안군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무안군이 지역민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모든 나이로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에는 청년층에 한해 보증료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모든 나이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무안군은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이미 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있어야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SGI)에서 가입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면 된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